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

Various Perspectives to Read the Micro-History of Korean Housing after the Period of Opening the Port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 수 홍 형 옥**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Hong, Hyung-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ous perspectives to read micro-history of Korean housing after the period of Opening the Port for foreigners. This study were designed to adapt original theory for exploring the unique housing perspectives without using strict basic assumption which were already developed in the area of sociology, history, anthropology and philosophy. Research method applied was literature review.

Each perspective might give useful insight to read the micro-history of Korean housing on the way of change after the Period of Opening the Port in Korea. Adapted perspectives to housing history were critical theory perspective, microsociological perspective, everyday life perspective(phenomenology tradition, symbolic interaction tradition, Marxist tradition), discourse perspective, exchange theory perspective, conflict theory perspective, and life course perspective.

Conclusively, each perspective must be adapted multi-supportively to read the housing phenomena, because housing change derived from complex causes and factors. The fruit of this study was to ensure the adaptable viewpoint to housing were useful to read the micro-history of housing change.

▲주요어(Key Words) : 미시사(micro-history), 비판이론 관점(critical theory perspective), 미시사회학적 관점(microsociological perspective), 일상생활 관점(everyday life perspective), 담론적 관점(discourse perspective), 교환론적 관점(exchange theory perspective), 갈등론적 관점(conflict theory perspective), 생애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전통의 재창조와 근대성의 재인식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성찰적 근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란 '자기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대안을 추구하게 만들어 발전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자들은 한국의 근대성의 위기는 '초기근대'와 '후기근대'의 비동시적인 것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기는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임현진 정일준 역, 1998)에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본격적인 후기근대의 시기에 '근대이후 한국 주거의 미시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하려는 의의는 탈근대이후 현대성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에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슐룸봄Schlumbohm(위르겐 슐룸봄 저/백승종 · 장현숙 편역,

* 본 연구는 2003년도 경희대학교 교비지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과제번호 2003-073-CS1001)연구지원'의 일부임.

** 주 저 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2003)은 미시사microhistory란 간단히 말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역사'라고 하였다. 그것은 역사속의 평범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그들 인간사이의 관계와 행동양식을 중심에 놓고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역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시사는 문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접학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효과적인 역사연구를 위해서 가장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야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미시Micro는 역사 연구자들의 관심 밖이었으며 1970년대에 와서야 미시사 혹은 미시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하였고,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된 차원을 다각도로 측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연구한 것을 일반화된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성립된 일반화가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고, 관찰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Braudel, 1969, 최현정,1997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미시사를 연구한 초기의 연구내용과 방법론들은 대체로 인류학적 역사의 지향, 대화적 방법론의 사용, 상하층 계급문화 사이의 갈등과 불일치의 주목, 하층민의 일대기 추적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연구내용과 방법론들은 인간경험의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 대화적 방법론의 사용, 관찰규모 축소를 통한 역사적 일반화, 정상적인 예외에 대한 관심, 이야기체 서술의 부활, 실마리를 통한 역사해석 등의 여섯 가지 방법론으로 집약되어 발전해 왔고(최현정, 1997), 이러한 방법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각기 조금씩 다른 명칭 하에 발전되어 왔다.

역사란 반복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의 주거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서구화된 주거환경에 살면서 탈근대는 물론이고 현대성에 관한 논의가 이미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근대성, 근대화, 탈근대, 현대, 현대성, 현대화에 대한 규정은 약간씩 그 개념과 진도에 차이와 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사상의 시작은 17, 18세기 실학의 발흥부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주거가 특정시대를 초월하는 문화적 산물이며 서서히 변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거사에 있어서 근대를 기술할 때는 우리사회가 근대적 사회체계로 개편되기 시작하는 1876년 개항기부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가장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주거란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하나의 주거유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손세관, 2004) 근대적 사상의 발흥이 곧 주거의 근대성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의 미시사를 다룬다는 것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들의 삶의 역사를 다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거 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인간의 삶과 사회적인 제약,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주거사를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문제와 일상적인 차원의 생활문제, 현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동화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삶의 교두보인 주거를 조절하고 적응해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주거현상은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하므로 주거의 미시사는 그 시대적 현상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행태가 공간을 통해 어떻게 읽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기술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려면, 역사연구의 미시사적 방법론이 주효하기는 하지만, 사회의 거시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주거공간과 연관된 인간의 행태를 읽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는 개념틀이 필요하다. 전통사회가 개화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각종 담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하고, 시기적으로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므로써 새로운 것을 보려는 비판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인구경제적인 변화, 공간적 변화와 맞물리는 생활사적 변화가 산업화를 거쳐 후기산업사회로 치달으면서 인간간의 행태가 어떻게 주거의 변화를 초래하는지 읽을 수 있는 개념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시사를 보는 관점은 미시적인 방법론이 주효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미시적이지는 않으며, 거시 속에서 미시를 아우르는 개념틀과 미시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거시적 환경을 보는 관점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서술하기 위한 관점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관점들을 이용할 때 주거변화의 미시사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읽히는지를 탐색하고, 그러한 눈을 이용하여 한국 주거의 미시사를 서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주거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주거의 미시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도서관 서베이를 통한 문헌연구이며, 그동안 역사학, 사회학, 철학, 인류학, 가족학, 여성학의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 저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주거의 미시사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주거분야의 예를 들어가며 그 적합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단, 본 논문은 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개념틀을 정립하고자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각 이론의 기본가정을 느슨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참조하거나 인용한 문헌과 논문은 주거사의 미시사적 관점의 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에는 7개 분야 33권이 사용되었고, 분야별 분류는 <표 1>과 같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은 무엇이 있는가
2) 그러한 이론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무엇이며, 주거 미시사에 적용할 때 어떤 점이 잘 파악되는가

<표 1> 분석문헌의 분류

분류	저자(연도)
역사학/철학	나종석 외 역(2002), 백승종 · 장현숙 편역(2003), 정근식(2000), 최현정(1997).
사회학/인류학	강수택(1994a, 1994b, 1997, 1998a, 1998b, 김 진명(1992), 김종길(2002), 박영신 편저(1989), 앙리 르페브르(1990), 이규숙 구술(1978), 이진우역(1996), 임현진 · 정일준역(1998), 일상문화연구회편(2004), 주경철역(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2001).
가족학/여성학	김명자(2002), 김양희(2002), 김혜경(1999), 박용 옥(2001), 조병은(1991), 유계숙 외(1999), 윤택림(1996), Boschetti, M.A.(1990)
주거학	손세관(2004), 홍형옥(1992, 2000), 홍형옥 외(2004), 홍형옥 외(2005), Morris, E and Winter, M.(1978).

II.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

인간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추적하여 주거와 인간 간의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간추리기 위해 그동안 인간의 삶을 통찰하기 위해 발굴되어 왔던 관점들을 검토한 결과 그 관점들은 아주 다양하였다. 근대 이후의 주거에 대해 사회사에서 거시적으로 다루고 공간사에서 유형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좀 더 섬세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점이 주효하다. 각각의 관점들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고 각각 그 방법론들의 장점과 한계가 다르므로, 각각의 관점의 특징을 서술한 후 근대이후 한국 주거의 미시사를 다룰 때 무엇이 중점적으로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 미시사회학적 관점, 일상사/일상생활의 관점(현상학적 전통,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전통, 맑스주의적 전통,), 담론 관점, 교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생애과정 관점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틀로서 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역사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이 더 섬세하게 관찰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1.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

실천적 비판이론에서는 인간의 관념이나 지각을 사회역사적 산물로 보고, 기존사회의 제반 규칙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관점은, 그동안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보고 개인이 성숙을 통해 자신을 억압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을 채택하게 되면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생활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개인이 힘을 합하여 아나키즘적인 발상으로 선택이 가능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위해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즉, 이 같은 관점은 그동안 경제와 정치논리로 풀어 왔던 한국의 공간환경의 문제점을 알고 그 공간환경으로 인해 왜곡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알게 해 주며, 그 변혁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운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개진하고 실천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만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산업사회 발전이 이루질 때까지 사회구조의 확립과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합리기능주의적 사고가 인본주의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던 것을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목표로 생태주의나 생태여성주의로 대체되어 나가는 것, 건축에서 모더니즘이 역사성과 맥락주의, 해체주의,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급속히 대체되어 가는 것, 이념이 돌고 돌아서 농경사회의 지혜의 보고로 존경 받던 노인이 산업사회에서는 연령차별주의ageism에 따라 사회의 부담으로 치부되고 양로원과 요양원과 같은 시설화 institutionalization로 해결하려는 것을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반연령차별주의antiageism로 전환하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에서 삶과 주거공간의 변화를 텍스트로 했을 때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개진하여 실천적으로 정립된 관점들(홍형옥 외 5인, 2004)이다.

주거사로 국한하여 보면, 산업사회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새마을 운동이 잘살기를 목표로 관주도의 운동이었던 것을 비판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문화운동을 펼치는 것, 합리기능주의 관점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급되었던 공동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생태주택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 공동주택의 공급과정에서 '똑같은 방'을 양산하던 합리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참여설계의 도입이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을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속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는 것,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던 아파트 생활을 비판하고 두레정신과 같은 우리고유의 호혜적 마을생활을 아나키즘적으로 도입하려는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는 등의 현상에 내재된 동력은 이러한 실천적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도시,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거시적 환경변화로 귀결되는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2. 미시사회학적 관점

미시사회학은 기업, 정치체계 혹은 경제 질서와 같은 대규모 사회체계를 중심으로 보거나 장기간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거시사회학과 반대되는 접근방법이며, 미시사회학적 접근은 개별가구를 미시사회로 보고,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별가구의 주거현상을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 관점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활동을 연구하며, 가족을 행위의 주체로 보고 가족 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은 가족의 능동적인 행동에 제약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미시사회학적 접근의 주거조절이론을 만들고 검증해 온 Morris & Winter(1978)에 의하면, 미시사회학적 접근 microsociological approach은 주거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상황조건과 관계가 있고, 주거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 때문에 문제로 정의되고, 그 문제해결은 개별가족의 총합인 집단적 사회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 즉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조절과정에서 각 가족이 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리하고, 개별가족이 사회 전체의 규범에 대응하여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족에게는 결함일 수도 있다는 점과 공해와 같이 많을수록 나쁜 부정적 결함을 주거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설의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개념 틀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가족은 문화규범과 개별가족의 주거조건과의 차이를 그대로 규범적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족규범에 의해 완화되고 남는 만큼만 규범적 주거결함으로 인식하여 주거조절행동을 의도하므로 개별가족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접근방법에서는 주거의 사용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만족도, 주택에 대한 의식, 태도, 요구사항 등이 주요 주제로 나타나며, 이러한 것이 각 가구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가구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문화규범과 각 가구의 개별적인 가족규범의 조화로 나타나는 주거규범이 어떠한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주거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사람들의 생활도 이와 함께 변한다. 한국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 외래문화의 영향, 경제변화와 도시화, 건축기술의 비약적 진보,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겪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주거와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다. 오늘날 우리의 주거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우리가 흔히 근대적 시기라고 하는 개항이후 약 100여년 간인데, 그 동안에 일어났던 역동적인 주거사를 미시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회적, 경제적 제약 속에서 주거환경을 통해 어떻게 조절되어 왔는지를 유기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사회경제적 환경, 기술발전과 주거환경조절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한 눈으로 살펴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한 시대의 이상적인 주거규범, 가족규범, 규범적 주거결함이 관찰되고 그 시대의 주거환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불만족해 왔는지 파악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개조나, 이동, 적응 등의 여러 현상들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며, 각 가족의 주거조절은 사회경제적 제약 속에서 가능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에 사회의 집합적 행동으로 관찰되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은 법으로 성문화되면서 한 사회의 문화규범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미시적으로 각 가족에 규범적 주거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불만족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규범을 낮추어 적응하는 규범적 적응, 가족의 구성을 조절하는 구성적 적응, 역할관계를 재정립하는 구조적인 적응이 그것이다. 근대적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양반의 내외문화도 변화할 수 밖에 없어 사랑채를 버리고 안채로 합류하면서도 안방으로 가지 못하고 문간방을 고쳐서 사랑방으로 사용하던 사례(홍형옥, 1992)에서 문화규범과 시차적 괴리를 가지면서 가족규범이 변화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확대가족과 대가족 지향 일변도였던 한국가족의 이상형이 산업화과정에서 기능적인 핵가족을 실천형으로 받아들였고 아파트 공급의 확산으로 인해 규범적 적응이나 구조적 적응보다는 핵가족화가 더욱 급격히 촉진되는 방향으로 주거조정(분가/이사)이 확산되었던 현상들을 읽어 낼 수 있게 한다.

또한, 한옥에서의 안방과 건넌방의 크기와 위치, 주부권과 가부장권을 기거위치로 상징하여 사랑채의 큰방과 작은방을 할당함으로써 역할구조의 위계를 나타냈던 것이었으나, 아파트 주거로 바뀌면서 집중형의 평면상에서는 안 쪽의 안방과 현관 앞의 작은 방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농경사회의 가부장권과 주부권 중심의 가족의 위계가 산업화이후 핵가족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3세대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에 조부모가 겪는 역할 갈등이 기거하는 방의 크기, 위치로 대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아파트의 대량공급은 한국가족의 부부중심 핵가족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노동력을 상실한 조부모는 안방을 내주고 아파트의 현관앞 문간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핵가족의 기능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부모가 핵가족의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미시사회학적 관점으로 읽어 낼 수 있다.

개인적인 규범적 주거결함에 따라 불만족도가 높아져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여러 행동들은 시간이 흐르면 집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의 농촌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만족 불만족과 주거조절과정, 무작정 상경이 도시주택의 부족률을 심화시켜 도시환경을 과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가족이 느끼는 제약과 만족 불만족,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기였던 1980-90년대에 횡행했던 아파트의 입주전 개조현상과 가족의 만족 불만족, 집값 상승을 노려 아파트 공급을 따라 다님으로써 지나치게 짧은 주거이동주기로 목격되었던 주거조정현상과 개별가족의 만족 불만족, 임대료 상승과 집주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임대를 보증하는 임대차보호법이 문화규범으로 법으로 제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개별가족이 겪는 주거적응문제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즉 개별가족의 집합적 행동으로 사회불안이 심화되면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문화규범인 법으로 제정되고, 법을 피하여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제재하게 되므로 어떤 의미에서 개별가족의 미시사회학적 주거조절과정의 총합은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상사/일상생활의 관점

일상에 대한 역사연구인 일상사日常史가 사회사의 중요한 한 방법론적 축을 이루게 된 것은, 일상은 반복적이지만 이러한 반복의 과정이 결국 일상의 사고와 행동을 생활화하고, 같은 사고와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의혹이 제거되어 행위가 결국 안정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상사에서는 일상생활의 구조가 강조되는데, 일상생활의 구조란 '반복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당연시된 조건들'을 의미한다. 기능주의나 구조주의가 대개 체계의 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것에 비해 일상생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반복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의미들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정 및 의미부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즉, 일상적 사고 및 행위의 위험을 구조화시키는 의미구조를 파악하려는 작업, 주관화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강수택, 1998a). 즉, 개인의 주관적 의미구조는 개인의 독특한 경험 및 지식의 총체에 근거해서 성립된다.

일상사 자료는 개인의 삶의 기록이므로 다수의 표본으로부터 일반성이 높은 추론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심층적 묘사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상사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은 스스로의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하고 창조되는 이론이므로 일상적 공간세계에 존재하는 거주자들이 그들 스스로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 등을 그려낼 수 있다. 다만 일상사에 나타난 삶의 이야기가 지니는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의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강수택, 1998b).

일상사의 자료가 되는 일상생활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초 전쟁상황과 전체주의 체재의 등장이 인간의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거부하고, 삶의 중심이 산업적 생산영역에서 여타의 삶의 영역으로 이동되면서 부터였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3가지 전통으로 발전되어 왔다. 슈츠Schutz를 중심으로는 일상생활의 생활세계적 특징에 관심을 갖고 '자연적 태도에 기초하여 경험, 사유, 그리고 행위가 상호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현상학적 전통이 발전되어 왔고, 미드Mead를 중심으로는 미국철학의 실용주의로부터 출현하여 자아의 형성, 발전, 표현의 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이 발전되어 왔으며, 르페브르Lefebvre를 중심으로는 개인의 재생산 활동의 총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적 전통이 발전되어 왔는데(강수택, 1997), 이들 세가지 전통은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각기 상대적인 특징이 있다. 현상학적인 생활세계 이론이 세계이해라는 해석적 관점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면, 미드의 이론은 실용주의적인 도구적 관심에 의해, 그리고 르페브르의 맑스주의적 이론은 세계해방이라는 이론관에 의해 지배(강수택, 1994a)되어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 현상학적 전통의 일상성

철학적 전통의 현상학적인 접근방법은 보이는 것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비판적이고 기술적인 과학이다. 즉, 현상학은 존재방식에 관심을 갖고 일상 세계 이면을 탐색하여 체험된 현상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므로 체험한 현상을 개인적으로 탐색하는 데 가치를 두며, 사회현실을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일상의 인간에 대해 현상학적 전통의 뿌리를 복원시키는 한편, 이를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슈츠와 루크만(Schutz and Luckmann,1975)은(1)다른 사람의 물리적 존재, (2)내 주변에 있는 물리적 인간들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나와 유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3)내 주변과 아웃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외부세계 사건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4) 나는 내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적 생활세계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세계, 사회세계라는 사실 (5)조직화된 사회세계 및 문화세계는 나와 내 이웃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자연세계'와 같이 의심할 바 없는 방식으로 사전에 주어져 있다는 점 (6)내가 직면하고 있는 매 상황의 창출에 단지 일부분만 기여했다는 점 등을 '의심의 여지없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일상적 생활세계는 이웃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실재이자 경험현장이자 상호적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영역이며,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하므로 인간은 생활세계의 피동체이자 능동체라고 보았다. 즉, 생활세계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변형되고, 우리의 행위를 변형시키는 실재라는 것이다(김종길, 2002).

현상학적 전통의 일상성 연구는 개인차원의 의식문제와 그것의 제도적 관련성에 내재된 미세한 사회심리현상들을 개념화하고 분석하는 데 위력을 가지며,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현실세계의 제 부문, 인간의 존재방식, 인간들 상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패턴 등을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은 총체적 체험과 그 실존의 장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삶을 선입관 없이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다.

즉 특유의 구조와 역학관계로 이루어진 동작과 생활을 체험으로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과 주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방법론적으로 살펴보면, 현상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description을 위한 자료를 다차원적으로 수집한다. 연구대상과의 심층면접, 개인의 일기, 사진, 신문, 가족역사의 기록 같은 개인적인 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단서까지 모두 설명에 포함한다(Boschetti, 1990). 현상학은 '주체 상호간의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므로 현상학적 검증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라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전통의 일상성 관점에서 주거의 미시사를 분석하면, 주거생활과 관련된 개별 거주자들의 경험과 감정,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주택에 대한 기억과 현재와 과거의 장소에 대한 의미, 현재의 주거에 대해 느끼는 고유한 경험과 의미에 근거한 주택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밝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이 분석될 수 있다. 작은 어른이었던 어린이들이 새로운 신분,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을 획득하면서 사회의 특수계층을 형성하고 가정 내에서 고유의 지위와 공간을 확립해 나가는 변증법적 과정, 여성들이 산업화 사회에서 임금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정주의 페미니즘에 탐닉하면서 주택을 하나의 성(城)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주거 내부에 의미를 부여해 가는 과정. 노인들이 산업사회에서 절대적 지위가 훼손되고 핵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공간적으로 위축되어 가면서 가족과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 기술발전으로 생산된 수많은 가전제품의 소비주체가 되었고 부엌에 즐비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백색가전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소비의 만족에 국한되고 가전제품의 기계성에 종속당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편승해 가는 주부들의 일상,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의 절대적 지위를 가졌었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존재로 전락하여 가정 내에서는 침대 한켠, 식탁의자 하나, 소파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녀에게는 부성부재의 문제점을 안겨주게 된 산업사회 가장의 일상 등이 분석될 수 있다. 즉, 근대이후의 한국주거의 변화에 있어서 개인, 세계관, 사회구조의 변증법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이에 제각기 부합하는 실재구성의 세 과정인 외부화, 객관화, 내면화 되어가며 사회적 실재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의 일상성 연구를 잘못하면 특정현상에 너무 집중한다든지 또는 거시 현상의 영향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접근해야 한다.

2) 상징적 상호작용론 전통의 일상성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상징들의 공유를 배우고 그 상징들을 통하여 공통의 행위모델로 인도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미드Mead의 이론에 의하면, '내'가 '타인' 혹은 '사회'와 만나는 이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의식, 자아, 의미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드는 사회적 과정이 일상적 환경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출현에 큰 책임을 갖는다고 보고 그 과정들을 해명하고자 하였다(Mead, 1962: 79 강수택, 1994b에서 재인용). 미드 계통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를 포함한다.; 인간은 사물들이 그들에 대해 갖는 의미들에 근거하여 그 사물들에 대하여 행위한다. 둘째, 이 의미들은 인간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셋째, 이 의미들은 각 개인이 자신들이 만나는 기호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해석과정을 통하여 수정되고 다루어진다(Blumer, 1969:2 강수택, 1994b에서 재인용)는 것으로 이 때 상호작용이란 대체로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이므로 일상생활의 사회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인 미드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강수택, 1994b). 첫째, 일상적 사유 및 일상적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란 근본적으로 사회적 환경 및 자연환경과 같은 외적 환경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므로 사회적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일상생활이 달라진다. 둘째, 사회적 환경은 개인에게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방식들도 제공한다. 각 개인이 사유와 인간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 능력 및 방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해결해야할 삶의 문제를 달리하고 문제해결의 방식과 정도도 달리한다. 셋째, 일상생활은 자기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기계적 반영은 아니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가해지는 일체의 작용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해석하고 판단한 뒤에는 주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역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의미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가족, 친구, 사회단체.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인간의 정신이란 개념화, 정의, 상징화, 추구화, 가치화, 내면화 등을 통하여 주어진 객관적인 자극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행동은 외부적인 자극에의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창조적 혹은 선택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역할이란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 역할이 상호작용이론의 중심개념이 된다. 여기서 역할이란 미리 정해진 일련의 권리와 특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과 그 상황에 있어서 상대적 역할들과의 관계에서의 의미와 특수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socialization과정과 지속적인 행동 양상의 조직체인 인격형성의 문제가 언급된다. 또한, 인간이 행동하는 방향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관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호작용이론가들은

모든 정신적인 변인을 다루지는 않고 정의적情意的인 과정, 특히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 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과정만을 강조한다. 또한,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에서 일반화된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에 역점을 둔다. 즉, 의미 있는 타인들이나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인 참조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규범, 다른 제도에서 일어나는 요인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인 요인들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정신적 요인에 대한 인식 없이는 사용되지 않는다(조병은, 1991).

이론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접근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내적인 작용에 좀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 또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의미, 상황의 정의, 상징, 해석, 다른 내재화된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도 포함하지만 숨겨진 행동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주거의 근대 이후 상황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가족간에 일어나는 행동을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연결시켜보면, 가족단위의 내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사건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가족적이고 비가족적인 역할들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외적 체제인 사회조직의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영향들이 분석될 수 있다. 예를들면, 전통주거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가족내 위계를 표현하기 위한 기거위치의 변화(홍형옥, 1992)로 나타났고, 근대주거에서 부부가 같이 쓰는 침실이 등장하고, 70년대 이후 온돌로 된 안방과 드레스룸을 통과하여 양식의 부부침실이 등장하면서 부부관계의 위상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각인 각상을 받던 전통식사법에서 아버지는 독상을 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두레반에 모여 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상징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안채와 사랑채로 고유의 생활공간을 확보하였고 '효'와 '예'에 의해 삶이 여과되어 직접적인 사랑보다는 투사적 사랑에 익숙해 있던 전통가족관계가 중앙집중난방의 보편화와 입식가구가 도입되면서 가족 상호작용의 상징성이 직접적이고 관계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설명될 수 있다.

후기근대/ 탈근대의 시기에 싱글족이 늘어나고 역할이 전도된 부부,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 임금도 가사노동도 나누며 주중에는 각자 살다가 주말의 여가만 같이 보내는 부부, 가족과 같이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편리성에 따라 원룸과 고시원 등으로 분리해 나가는 나홀로 사는 거주가 많이 목격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등 각양각색의 신종 개인과 가족들이 출현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상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들(원룸, 고시원, 코쿤하우스, 주거용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80-90평의 대형아파트도 침실은 세개 뿐, 스위트(suite)가 있는 아파트)로 주거유형과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상들을 읽어낼 수 있다.

3) 맑스주의적 전통의 일상성

르페브르Lefebvre는 일상생활이란 노동, 가정생활 또는 사생활,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이며, 일상생활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적인 것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하였다(르페브르, 1990). 그리고 일상생활은 일상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일상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순환적인 시간과 리듬에 지배되며, 이는 집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단편화되고 드러난다. 둘째,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셋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상징들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람들은 이들 상징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리 주어진 현실로서 지각한다. 넷째, 순환적인 시간과 그때그때의 사회적 공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과제들의 해결로 채워져 있는데, 이 충족과 해결은 매일, 매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동일한 방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사회의 상징적 재생산과 물질적 재생산을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행위맥락과 체계 통합적 행위맥락을 구분 짓고 있다. 물질적 재생산은 체계통합적 행위맥락으로 공적 경제와 국가가 이에 속한다. 반면 상징적 재생산은 사적영역으로서의 핵가족, 정치적 참여와 토론, 여론 조성을 하는 공적 영역인 생활세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 world로 이루어진 이중체계로 보고 있는데 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족, 공적 경제, 가구, 직장에서의 제도적 분리를 반영하므로 남성중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남성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여성은 가족내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소비자로서 공적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가족 역시 체계적인 요소인 계산, 전략과 같은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곳이며 이미 자녀양육에는 돈과 권력이 침투되어 있다. 산업화, 자본주의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가부장적 핵가족의 형태에서 성역할은 사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지배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Pateman, 1992. 윤택림, 1996:85에서 재인용). 따라서 일상생활의 성별분리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 및 그 분석은 가부장제의 지속성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일상생활 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불가피하게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 및 사물과 일정한 공간적 관계 속에 위치하게 된다. 이 공간적 관계는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 공간적 관계는 우선 자연 지리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 자연적 조건의 영향은 여러 다

른 유형의 공간적 조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공간적 관계는 순수하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조건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이 조건에는 사회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의 가능성, 방향, 정도 등에 관한 가치관이나 규범이 속하는데(강수택, 1998b) 신분제도, 가족제도, 관료제도 등에서 이러한 조건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계의 성격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개인의 위치, 관점 등에 따라서 다시금 개인적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전후, 좌우, 상하, 원근 등 공간분할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들 범주에 의한 실제적인 공간배치는 개인의 신체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공간구조의 이러한 개인화는 자연적 공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간이나 개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 맥락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적인 공간구조, 사회문화적인 공간 구조 등 외적인 공간구조가 개인적인 공간구조 위에서 재정립됨으로써 개인의 일상적 사유나 일상적 행위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물론 공간구조가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즉, 공간의 내적 속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간구조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내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한편 공간구조의 근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공간의 표준화 및 그 결과로서의 지구촌화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전을 지적할 수 있다. 공간의 표준화란 기든스Giddens에 의하면 공간이 장소로부터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다. 지구촌화란 사회적 관계가 특정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는 일이다. 따라서 근대화된 공간구조 속의 개인의 일상생활은 기능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의 대상인 자연과 친화성을 갖게 되고, 자연은 언제나 기술발전의 수단으로 파악되면서 자연의 질적인 의미는 배제된 채 오직 표준화, 계량화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위에서 자연에 대한 획일적인 기술적용 및 그 영향의 폭이 확장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왔다. 이처럼 한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그의 생각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조건들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새로이 구조화됨을 볼 수 있다(강수택, 1998b).

하버마스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체계와 관료행정 체계의 복합성과 강제성이 증대되어 생활세계의 일상적 실천이 위협받고 파괴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이진우 역, 1996).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첫째 전통적인 생활형태가 분해되면서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될 때(예를 들면, 산업화과정에서 여성이 임금노동에서 소외되고 가정주의 페미니즘domesticity feminism에 탐닉하여 좀 더 넓은 평수와 투자가치, 좀 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 고급 가전제품에 열광하면서 주택을 아방궁으로 꾸미려고 인테리어 경쟁을 벌이는 주부들의 보상심리), 둘째 하위 체계들과 생활세계간의 교환관계가 분화된 역할에 의해서 조정될 때(예를 들면, 개인이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으로부터 소외되어 더 개별화되어 가고 독신주의자와 자녀없는 부부가족이 늘어나는 현상, 기업가에 의해 조종되고 집값과 가전제품의 비용을 갚기 위해 고용주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산업사회 샐러리맨들의 일상, 거주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어 개별가구는 소비자의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상품을 선택하는 현상), 셋째, 노동자와 시민의 역할이 사회적 보상과는 반대되는 시간과 돈의 영향을 받을 때(예를 들면, 시민들이 결국은 환경파괴에 이르는 재건축에 대해 경제적 보상 때문에 현혹되는 현상), 넷째 이러한 보상이 돈으로 주어지고 그 역할의 방향이 결정될 때(예를 들면, 금전적 보상에 따라 시민이 적극적 행위자에서 소극적 수혜자의 역할로 전락하는 현상, 노동의 세계와 공적인 세계로부터 철수하여 자아실현과 자기결정에 대한 사적인 희망을 우선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현상, 고객의 역할에 만족하기 때문에 도시, 근린, 주거의 형성에서 소외된 채 주거내부 선택의 자유에만 국한되는 현상) 발생한다(홍형옥, 2000)고 하였다.

어찌했든 구조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개인과 가족이 식민화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변동의 주역으로서 읽힌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적 일상생활의 관점은 중요하다. 체계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인, 노동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지만 주택과 가전제품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한 주부, 현대의 귀족으로 중세 이후 가장 각광을 받는 신분으로 부상했던 아동과 학생이 교육체계 변화에 따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현상,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가족의 이동을 유도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좋은 집을 소유하고도 임차자가 되게 하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의미를 잃고 가족의 일상생활도 교육체계의 식민화가 되어가는 현상. 가족과 개인의 일상은 자본주의와 공업생산의 발전에 따라 10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불과 30년만에 농경사회는 산업사회로, 고도산업사회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현대의 생활세계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휴대폰에 식민화되어 버렸다. 이용능력에 따라 신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주거환경 개념까지 확대될 것이므로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바뀔 것이지만, 그 역기능, 즉 식민화 현상을 상상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4. 담론 관점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변혁을 의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담론이 있었지만 최근에 거시적 시각의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담론discourse 관점이다. 담론은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기 위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담론은 언어사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의 일상의 담화와 상호작용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세계를 만들어 낸다고 본다. 사회세계의 각 측면들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는 따로 떨어

져서 밖에 있는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객체가 되며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 실체와 관련된 감정이나 태도를 사물things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실체를 이루는 실재의 구성절차는 생산의 기초가 되고, 대화, 묘사. 그리고 설명과 같은 모든 형태의 담론들은 실재의 구성요소로 보며,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말로 표현하는 묘사는 이해할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찰자들에게 설득시켜야만 한다는 점에서 설명적이다. 이런 면에서 담론은 실질적이고 이해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이지만 상황과 사회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진다. 담론은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들과 사건들에 대해 선택적 준거와 특정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묘사적 실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이론화하며, 의미를 규정하고 부여한다. 실재가 구성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능동적, 혹은 수동적 의미가 실현되므로 담론에 있어서 사회적 배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담론 접근은 오로지 그것들의 물리적, 행동적, 혹은 언어적 잔재만을 볼 뿐이므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닌다(유계숙 외 2인, 1999).

근대 이후의 한국주거의 미시사에 있어서 주거변화를 이끌었던 담론들을 보면, 새로운 아동관의 등장에 따라 어린이라는 계급과 계층이 부각되고 소아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실로 그 명칭이 변화하면서 가족생활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담론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담론들은 18세기 실학파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특히 개화론자들이 한옥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바꾸기를 유도하는 글을 잡지와 신문에 싣게 되고 한양절충식, 한일양절충식 주택들이 우리사회에 소개된다. 1923년 김유방이 생활실이 있는 이상형의 집을 평면도와 함께 소개하였고, 박길용은 1930년대 문화식 별장, '廚에 대하여' 등의 글로 소위 문화주택을 신문지상에 소개하여 새로운 주거에의 선망을 유도하였다(홍형옥, 1992). 산업화 이후에는 아파트의 편리한 삶을 부각 시키는 담론들이 입식과 아파트 생활로 중산층을 유인하려는 의도에서도 끊임없이 매체에 유포된다. 신가사노동담론과 같은 식민지하 각종 근대담론의 발생은 피식민지를 비문명 상태로 규정하면서 문명적 제국주의 같은 세련된 식민지 지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식민지하 문화적 지배구조의 특성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민족주의 사회운동가를 중심으로 신문화건설과 풍속개량의 차원에서 가정생활과 가사노동의 합리화 담론이 일어났고, 그 후로 과학과 효율, 위생, 전문주부론, 가정의 단란 등의 담론이 제도교육에서 전수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사노동론과 주부역할에 대한 가치부여는 일부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게 된다. 30년대 후반 상품광고 등은 주부의 역할과 가정단란의 이미지를 선전하여 이러한 담론을 유포시켰고, 전통사회에서 효의 수행방식으로서의 가사노동이 효율의 실천방식으로서의 가사노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것이 가정단란과 핵가족 가치를 낳음으로써 가족의 근대적 변형의 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김혜경, 1999), 새롭고 편리한 삶이란 곧, 주거를 바꿈으로써 이루어 질 것만 같은 환상을 끊임없이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시대별로 달라지는 가족생활, 일상생활과 연동되는 담론들이 주거의 근현대 담론으로 유포되고 이러한 것이 주거변화를 이끌거나 적응하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 교환론적 관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그리고 가족학자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쟁점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시장을 은유한 말과 그것이 지니는 철학적 입장을 사용해 왔다. 즉, 교환론적 개념 틀은 행동주의와 인간의 행동은 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학의 핵심원리와 결합되어 있다(유계숙외 2인, 1999). 그러나 교환론적 시각의 초점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 그 이상을 의미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해체 그리고 관계를 특징짓는 역동성을 중재하는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환론은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리고 관계가 진행될 때에는 어떠한 관계의 유형이나 역동성이 나타나는지 또한 관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매개요인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교환론의 핵심개념과 주요 가정은 주로 구애과정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으므로, 매력, 만족, 호혜성, 공평성, 몰입, 신뢰 그리고 의존과 같은 요인들이 구애관계를 특징짓는 몰입의 수준을 심화하는 매개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교환론은 친밀한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평성, 호혜성, 의사결정, 지배성, 통제, 권력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김명자, 2002). 예를 들어 부부권력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각각의 자원과 관계에 대한 의존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의 안전성을 매개하는 요인들이 설명되어야 하며, 관계에 대한 만족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안이나 제약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둔다.

교환론은 행동을 할 때 보상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애매하고, 행동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예측 대 사전추론의 문제 그리고 환원주의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교환론적 개념틀이 합리성과 자기이익을 강조하는 한 그것은 분리된 자아를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 선택과 자기이익에 근거한 개인의 사회교환의 가정은 인간관계에서 이타주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보상이 될 잠재력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환유형으로 협상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보상과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보상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관계와 같이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보답을 늘리려는 관심이 존

재한다. 즉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관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교환의 지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행동은 개인의 강화 역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경험하는 매력과 만족의 수준, 경험하는 공정성과 호혜성의 수준, 그리고 경험하는 권력 역동성과 의존성의 수준 등 관계가 어떻게 경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김명자, 2002).

이러한 교환론적 관점은 전통가족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산업사회에 기능적인 부부중심 핵가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변화와 노인들의 지위변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전통사회의 어른은 집안대소사를 꿰고 있으면서 자손들에게 지혜의 보고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혼입婚入한 여자들은 기존의 가족질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효행을 하는 것이 기본 덕목이었다. 집은 가족의 생활을 그대로 융통성있게 담는 그릇이었으므로 사랑채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가부장권이 행사되고, 안채는 안방을 중심으로 주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 질서였다. 거주자가 누가되든 하나의 방은 거실도 되고, 침실도 되고, 식당도 되고, 때로는 욕실도 되었으며, 집은 혼입한 여자의 가정적 봉사를 바탕으로 일생을 책임져주는 보금자리였다. 산업사회로 치달으면서 임금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은 주부라는 새로운 역할에 포함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후기산업사회의 주부는 치맛바람으로 자녀에 헌신하고, 복부인으로서 투자와 투기를 통해 가산을 늘림으로써 아파트와 자동차,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당당한 입지를 구축한다.

산업사회의 지식이란 학교와 사회와 직장으로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므로 전통가족의 어른이던 노인의 지혜는 쓸모가 없어지고 오직 부양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결혼한 여자들도 시댁이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스스로 성취를 해 나가야 하는 본인부담의 일생이었으므로 부모부양을 무엇보다 앞서는 효행의 덕목으로서 보다는 어른 공경의 예의 차원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봉사조로 받은 것이 없는 장남의 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기 마련이었다.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노인은 자손들로부터의 효행을 기대하기 힘든 세월이 된 것이다. 1988년 상계동의 3세대 아파트는 현관을 분리하고 내부는 통하는 형태로서 그런대로 분양이 되었지만, 1985년 목동의 3세대아파트는 현관은 같이 쓰고 내부에서 두세대로 나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1가구용으로 개조하여 분양을 마쳤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가족이 이미 핵가족화가 심화되어 3세대아파트가 수요를 창출해내지 못함을 읽어내지 못해서 벌어졌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은퇴 후의 삶의 기간을 제3의 연령기The third age로 보고 자녀에게는 의존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의식이 팽배된 현실도 교환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환론적 관점은 전통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산업사회 초기까지도 당연시되던 방계친척과의 고리가 약화되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서울에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하나 있으면 같이 거주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방출신 학생들이 허다하였고, 그만큼 방계 친척까지의 고리는 견고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 이르면서는 형제와 사촌이 살아도 그의 집에 기숙하려는 의식은 급격히 약화되고 서로 도우는 관계보다는 의례적인 관계만 유지할 정도로 친척관계가 형식적이 되었다. 그 시절에는 흑백 TV만 있어도, 백색 전화만 있어도, 서울에만 살아도 교환할 것이 있는 사회였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은 가정마다 TV도 여러 대, 핸드폰을 포함하여 전화도 여러 대, 다양한 가족에 맞추어 고시원,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 분화되면서 굳이 친척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주거생활이 가능하므로, 즉 교환할 것이 없어지므로 친척관계는 의례적인 관계에 국한하여 소원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상 등을 교환론적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다.

6. 갈등론적 관점

갈등에 대한 인식이 현대사회학 이론으로 개념화되고 그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맑스Marx와 웨버Weber, 짐멜Simmel이후이다(박영신, 1989). 기능이론은 사회와 가족성원들의 규범이나 적응, 역할, 가족의 기능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나 갈등이론에 의하면, 가족갈등은 기능론적인 역할갈등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원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갈등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의 갈등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맑스의 계급적 갈등론에서 시작된 갈등이론은 다렌도르프Dahrendorf에 와서는 구조기능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갈등과 합의이다. 다렌도르프는 구조기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변동이나 사회변화, 사회갈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맑스의 변증법을 이용해 사회체계 내에서 균형과 합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즉 갈등을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갈등'이 되고 그 주체가 차지하는 몫 또는 역할에 대한 것이 '기능'으로 설명된다(김양희, 2002).

따라서 갈등이론의 이해를 통하여 근대이후 우리의 주거문화에 나타나는 미시적 측면을 읽어 내려고 하면, 가족 내의 관계 또는 가족과 공간, 여타 제도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갈등이라는 개념 및 그 기제의 이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의 원인, 결과 등의 특성은 가족 안에서 가족원들의 관계를 이해하여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체되는지와 같은 측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나 성역할과 같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현상을 자원이나 권위의 불평등한 분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갈등이론

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갈등이론은 가족제도가 어떻게 다른 제도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지 가족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기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갈등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갈등을 잘 이해하여 이를 잘 처리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통사회에서 고부, 부자, 형제의 갈등 소지는 사회적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는 유교사상의 근간인 '예'의 구조로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형제간의 갈등은 장유유서로, 부부관계의 갈등은 부부유별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고부는 안방과 건너방의 위계 때문에 거역하기 어렵고, 부자관계는 가계계승의 최고위치인 가부장과 가부장권의 계승자라는 서열로서 가내 기거위치와 위계가 정당화되며, 형제관계는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을 통해 상대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 부부관계는 부부유별의 예를 지켜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 기거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장치를 사용하였다.

근대화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제는 대체로 지켜졌지만 해방과 6.25 전쟁으로 많이 변화한다. 가계를 책임져야하는 어머니와 며느리였다가 능력개발이 되어 가부장이나 남편보다 유능해진 여성들의 부부갈등, 산업사회에서 출생순서와 동일시되지 못하고 권위에 따른 형제간 갈등, 혼입婚入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능력별로 발언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사회의 고부갈등, 기술발전에 따라 단일지표가 아닌 다양한 지식기반 사회의 능력에 따라 핵가족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방관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이러한 것이 공간적으로 대응되고 조절되어 가는 현상들이 갈등이론으로 읽혀질 수 있다.

핵가족이 살기 좋게 끊임없이 수준이 향상되어 제공되는 아파트들은 더 이상 갈등 관계를 지속하면서 직계가족이 한집에 살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사회는 이미 3세대 동거형 아파트나, 삼세대가족 거주가능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해도 갈등이 있는 한 동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주거유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인간간의 갈등관계를 해결할 때 적응보다는 공간조정의 기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만큼 주거환경은 다양화되었다.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사회의 마을은 입향조와 종가, 어른을 중심으로 호혜적으로 움직이던 체계였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신분이 직업으로 바뀌고 호혜적인 두레가 복지제도라는 사회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이웃간의 관계는 경제적 환경적 사건 들, 특히 조망, 일조, 주차, 소음 등에 의해 언제든지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무적 인간관을 좀더 호혜적 인간관으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자하는 것이 공동체 운동이며, 도시도, 주거단지도, 주호단위도 갈등관계를 줄이고 호혜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후기근대로부터 도약하여 탈근대를 제대로 가꾸어 살기 좋은 현대성을 지향하려는 집단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7. 생애과정 관점

생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또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과 가족성원의 삶과 사회단위로서의 가족이 시간과 역사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모두 분석한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변화에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며, 개인과 가족원의 삶의 변화를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계속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역사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이다. 가족은 거시사회적 맥락 내에 있는 미시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애발달과 가족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발달을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심리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첫째,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적인 시간의 틀(시간적 맥락), 둘째, 개인과 가족의 사회생태학(사회구조적 맥락과 의미의 생성). 셋째, 개인과 가족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유계숙외 2인, 1999).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생애주기 관점은 개인과 가족이 시공간을 통해 살아가는 일대기를 거치면서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속에서 주거이동과 주거공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근대이후 주거의 변화를 연구할 때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일대기를 거쳐 나타나는 주거의 미시사적 측면과 연결하여 분석하면 유효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분석의 시각에 고유한 관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첫째, 생애과정 관점은 중요하고 여성주의Feminism 지향과 통합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분석을 할 때 여성의 변수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gender이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으며, 가족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 가족과 관련된 정책상의 쟁점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인구학적 변환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쟁점을 다룰 수 있다. 셋째, 가족구조에서 나타나는 인구변화를 잘 기록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즉, 세대간 전달의 과정적 요인이 변화하면서 가족구성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고, 비가족적인 관계와 구조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구조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식의 미시체계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생애과정 틀을 이용하여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가족-세대, 사회-역사의 구조와 과정이 상호연결되어 있다(윤택림, 1996).

구술을 통해 정리된 이규숙의 삶(구술/이규숙 · 편집/김연옥, 1978)을 통해 생애과정관점에서 근대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의 양반부녀로서 사대부가에 시집을 가서 전통사회로부터 근대, 현대까지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대기는 개항기 & 일제강점기, 해방전과 해방후의 복구와 산업화과정에 이르기 까지 사회변화와 개인사의 변천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거주해 왔던 주거를 고찰할 수 있게 하며, 연역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주거생활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현재 북촌한옥문화센터가 바로 이규숙을 맞이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지었다는 근대주택 인데,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직장쪽을 바라보곤 했다는 2층 건물은 전통가족의 삶을 살다가 전쟁을 겪고 다시 돌아와 산업사회에 까지 걸쳐 개인이 겪었던 삶의 변화와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변화가 주거공간에 어떻게 적응, 조정되면서 변화되어 나가는지 읽어볼 수 있게 한다.

현재 80-90세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생애과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근대화과정이 녹아 있다. 이들은 산업화와 기술발달이 되어가면서 욕실과 위생, 식품저장과 냉장고, 부엌, 작업대, 난방방식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세대들이다. 전통주택에서 현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주거유형의 변화를 공간사적으로만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한사람의 생애과정을 통해 미시적으로 읽어낼 때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그에 따른 공간변화와 심리적 부조화가 서서히 녹아들어 어떻게 적응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근대이후 농경사회의 가부장적 담론 하에서 개인과 가족원의 삶을 담는 주거는 곧 가족원간의 신분, 서열, 남녀에 따른 평등하지 않은 상하 종적인 관계를 주거구조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개인과 가족원의 일상생활이 규정되었다. 그 이후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성을 표방하면서 식민지하의 담론들은 문화주택을 선도하였고, 도시화로 인한 주택부족과 함께 거주자와 생산자가 분리되는 근대적 주택공급체계는 전통주택의 변화에 가담하는 외부적 영향을 이루었다.

해방과 전쟁, 그 후의 복구의 시기를 거쳐 산업화 초기를 거치면서 핵가족, 어른과 아동, 학생, 산업화의 역군인 노동자와 회사원, 가정을 지키는 주부, 노인은 그 기능성과 생산성에 따라 전통적인 농경사회와는 사뭇 다른 일상성을 갖는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와 신분은 물리적인 주거공간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물신주의적 풍토가 만연한 자본주의사회의 고도의 기술발전의 성과로 채워진 공간구조 속에서 일상을 꾸려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의 지배를 받아 생활세계가 분절화되고 식민화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산업사회의 물신적 풍토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담론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산업사회의 성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다양화된 사회에서 그 실천은 이미 국가와 같은 거시구조보다는 아나키즘적으로만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현대 테크놀로지의 발달 특히,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몰고 왔고 개인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로 바뀌게 하였다(일상문화연구회 편, 2004). 이는 현대인의 경험의 형태와 내용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탈근대 이후 현대성의 규정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상황이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상의 개괄적인 근대이후 주거변화의 미시사를 읽어낼 수 있는 관점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개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미구조, 시공간구조, 사회구조, 그리고 물질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읽어내기 위한 관점들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미시적이지는 않으며, 거시 속에서 미시를, 미시를 통해 거시를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관점들로 정리되었다.

첫째, 실천적 비판이론 관점으로는 기존의 주거공간과 일상생활을 구성하였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타나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은 체제로부터 나오지만 현대의 비판적 패러다임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기준 때문에 아나키즘적인 실천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미시사회학적 관점으로는 가족규범, 소속된 사회집단의 문화규범, 이들이 합쳐져서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주거규범을 읽을 수 있고, 제약과 성향 속에서 가족의 만족,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조정과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이러한 가족들의 조절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 바뀌고, 주거유형과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가족의 주거조절행동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사회현상을 가족의 집합적 행동으로 해석함으로써 가족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일상사/일상생활 관점으로는 반복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당연시된 일상생활의 구조가 강조되고 이러한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주관적 해석과정 및 의미부여 과정이 드러난다.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부여가, 상징적 상호작용전통에서는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상징하거나 지원하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맑스주의적 전통에서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주거공간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한다.

넷째, 교환론적 관점으로는 공평성, 호혜성, 의사결정, 지배성, 통제, 권력 같은 매개요인들이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면서 부부, 고부, 부자, 출생순위의 권위가 공

간으로 지원되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다가 교환의 매개요인과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주거공간의 의미와 사용이 달라지는지 읽어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갈등론적 관점으로는 기능론적인 역할갈등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이 성원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시대가 바뀌면서 소유한 자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권력이 달라진 부부, 고부, 부자, 형제, 삼세대, 이웃의 갈등관계가 어떻게 미묘하게 거주공간에서 갈등과 분화, 분쟁으로 나타나는지 읽어 낼 수 있다.

여섯째, 생애 관점으로는 가족 또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공간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주거공간변화에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며, 가족은 계속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역사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이므로 사회 속에서 주거공간의 집합적인 변화를 추적해 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근대이후의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발굴하여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주거의 변화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되는 구체적인 연구로 발전되어야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5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5년 07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9월 12일

【참 고 문 헌】

강수택(1994a). 일상생활이론의 비교연구: 사회학적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 85-118.

강수택(1994b).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의한 일상생활론 연구-미드와 고프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 417-448.

강수택(1997). 일상생활의 개념과 일상생활론의 역사. **사회과학연구, 15,** 115 - 130.

강수택(1998a).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강수택(1998b).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제32집,** 가을호 503-529.

김명자(2002). **교환 및 자원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이론(pp.65-111). 서울: 교문사.

김양희(2002). **사회갈등이론.**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이론(pp.113-161). 서울: 교문사.

김종길(2002). 거대이론의 위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7,** 67-92.

김진명(1992). **의례 및 일상생활을 통해 본 가부장적 담론과 권력-호남 삼리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경(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 근현대가족: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5(1),** 154-182.

나종석 외 역, 알프 뤼트케 외 저/(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박영신 편저(1989). **갈등의 사회학.** 서울: 까치.

박용옥(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백승종 · 장현숙 편역, 위르겐 슐룸봄 저/(2003). **미시사의 즐거움.** 서울: 돌베개.

손세관(2004). 한국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주거학회 2004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1-10.**

앙리 르페브르(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주류일념

유계숙 · 최연실 · 성미애 편역(1999). **가족학 이론.** 서울: 문음사.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이규숙구술 · 김연옥 편집(1978).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 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4. **반가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 서울: 뿌리깊은 나무.

이진우 역(1996).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일상문화연구회 편(2004). **일상문화 읽기. 자기성찰의 사회학 3.** 서울: 나남출판.

임현진 정일준 역, Beck, Giddens & Lash 원저.(1998). **성찰적 근대화.** 서울: 도서출판 한울.

정근식(2000). 한국의 근대적 시간체제의 형성과 일상생활의 변화 I-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8,** 161-197.

조병은(1991). **가족학 연구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미시이론을 중심으로(pp.59-83). 서울: 교문사.

주경철 역, 페르낭 브로델 저(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2, 일상생활의 구조 상, 하.** 서울: 까치.

최현정(1997). **미시사의 방법론과 그 가능성.**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2001). **근대화전략과 새마을 운동.** 서울: 백산서당

홍형옥(1992). **한국 住居史. 대우학술총서 66.** 서울: 민음사.

홍형옥(2000). **건강한 삶의 질 모색을 위한 과제.** 김우창 외. 21세기 환경과 도시, 135-162. 서울: 민음사

홍형옥 · 이경희 · 최정신 · 김대년 · 조재순 · 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총서 36. 가족연구 시리즈7. 서울: 지식마당

홍형옥 · 오혜경 · 주서령(2005). **주거의 의미와 사용.**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Boschetti, M. A.(1990). Reflection on home: implications for housing does elderly persons. *Housing & Society, 17(3),* 57-65.

Morris, E.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